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과정, 고요함과 침묵

디자인프레스  2025. 3. 26. 17:38

최병훈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Voice of Silence〉

가구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국내에 ‘아트 퍼니처’를 도입한 [최병훈 작가](#)가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 Friedman Benda

고요한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

“

작품의 중심이 되는 재료들. 차가운 성질의 현무암이든 따뜻한 나무든 그 모두가 각각의 고유 역사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이들 간의 대비 속에서 조화를 찾아내고, 자연의 형태에서 우리나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최병훈 작가

”

최병훈 작가는 “돌은 태초의 잔상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작품에서 사용한 현무암을 ‘침묵의 메시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돌의 물리적인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명상이라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흔적에 현대적인 수공예를 더하여 고유한 맛을 담아낸다. 최병훈 작가가 꾸준히 선보이는 시리즈이자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태초의 잔상 시리즈는 거친 돌의 외면과 매끈한 내부를 대비시켜 자연의 원시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도 작품들을 통해 광대함 속에서 멈추고 사색하며 고요함을 경험하길 바란다는 작가의 메시지. 자연 소재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특성에 뿌리를 두고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부각해 균형을 맞추는 것. 바로 최병훈 작가가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이 아닐까.

조형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오!크리에이터〉인터뷰 중에 최병훈 작가. ©designpress

전통 한국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융합한 선구자인 최병훈 작가는 조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다. 나무, 점토, 화강암, 석재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그의 작업은 한국의 공예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 전 지구적 감각을 불려일으킨다. 작품은 거칠고 매끄러운 질감, 자연과 인공의 경계, 과거와 현재 사이의 세심한 균형 속에서 탄생한다.

“작품은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안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다”는 그의 철학처럼 최병훈 작가의 작업은 감각적인 과시보다는 사유와 명상, 시간의 흔적, 존재의 본질에 주목한다. 각 작품은 기능적인 가구의 형식을 띠기도 하지만, 실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섭리와 존재의 균형을 체험하게 하는 조형적 명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rticle Link click](#)